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희망 복지공동체’ 지향

남원시가 지역 내 산재한 복지자원 간 연계와 지역복지 강화로 시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서비스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지 항상 살피고,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인적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커뮤니티케어(Community-care)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약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이에 남원시 복지현황을 알아본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전국 최고

남원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제도 폐지와 점진적인 기준 완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심도 있는 상담과 맞춤형 연계를 통해 2,097가구가 맞춤형 기초급여를 신청해 1,124가구에 혜택을 주었다.

이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공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전국 31개 우수지자체 중 최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과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올해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한 수급신청을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맞춤형복지 대상자 발굴 및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수급자가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14일 이내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종일 간병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공간병인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남원시 복지과(과장 조환익) 추진시책의 특이사항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대상자가 갑작스런 통보조치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식품류의 구호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어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2020년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 총 20여억원을 지원하며 자활사업 참여자 101명 중 10명이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했으며, 통장사업 가입자 중 70명이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했다.

이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올해에도 저소득층 자신행성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초급여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

저소득 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든든수당 신설 처우 개선에 나서

읍면동 복지자원 활용 특화사업 시행

또한 지역자활센터, 남원시건강강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7개 자활사업단의 참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남원시지역자활센터는 작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1월 자활사업단을 통해 청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사업단비대리(프랜차이즈점)를 개점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으로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어져 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시행으로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고 ‘탈수급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탈수급자의 소득 보전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남원시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장애인(7,794명)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2,795명에게 매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범죄피해에 취약한 재가여성장애인 가구에 성폭력 등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지원에 나서면서 관내 약 1,400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5,280원 가량의 요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17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장애인들의 교육장 및 쉼터 등 편의시설 이용증진과 장애인단체 간 업무협업 기



찾아가는 복지행정



주민복지 대통령상 수상

능향상을 위해 구)향교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단체종합회관’을 건립을 추진해 2021년 임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출출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원 확대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갑작스런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1,014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으로 총 6억7,900만원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70회의 사례회의를 거쳐 770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1,007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지원 8억900만원, 행정지원 8억7,200만원 등 총 16억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었으며, 올해에는 보다 많은 예산과 지원금을 확보해 어려운 곳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1 희망 나눔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하는 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원 만들기를 위한 부분과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며, 1인가구 등 이웃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구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가구를 발굴해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사업과 자가격리료 격리기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찾아서 살피는 동네 한바퀴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상담을 적극 추진,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이 지역사회



희망키움통장 2층점 개점



맞춤형복지 주거환경개선

안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 강화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사회복지사 217명에게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든든수당’을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각 읍면동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특화사업을 시행,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지원 연계 등으로 복지안전망 강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애우와 보훈의식 함양

지난해 제정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따라 보훈수당 및 생일 축하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수당을 인상한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보훈수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파손된 3.1만세운동 발상지(덕과면) 기념탑 주변의 정비공사를 실시해 현충시설물의 위상을 정립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감과 함께,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희망 복지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투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